

- ▷ 환경부·외교부,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 ▷ 제1회 정부기념일 행사 개최방안과 대기환경관리 국내대책 및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 전문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8월 14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에서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관계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제1회 정부기념일 행사 개최방안과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위해 향후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지정된 최초의 유엔 공식 기념일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 성과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해 8월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처음으로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로 나왔고,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아울러,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심의됨으로써 '푸른 하늘의 날'이 유엔 기념일일뿐만 아니라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푸른 하늘의 날' 지정 취지와 의미를 공유하고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위한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공식 주제(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 Clean Air for All)를 반영하여 오는 9월 7일 서울 노들섬에서 환경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푸른 하늘의 날'의 첫 번째 기념행사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선우영 국제대기환경단체연맹 사무총장, 홍현종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전 한국환경기자클럽 회장), 이경민 전자신문 기자(환경부 출입기자단 간사), 이정우 (주)피오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상태가 한층 좋아졌지만, 방심은 금물이다"면서,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국내 대기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